



우리 본당 가족사진 <일신동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1983년 설립

입당송 |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 미카 5,1-4ㄱ

화답송 | 시편 80(79),2ㄱㄴ과 3ㄴㄷ.15-16.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 히브 10,5-10

복음 환호송 | 루카 1,38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 루카 1,39-45

영성체송 |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간 이유는?

상상 1. 입덧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덧은 임신 4~8주부터 시작하여 평균 5주 정도 나타난다고 한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6개월 터울이다. 그러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간 이유가 입덧 때문이라는 엉뚱한 상상(몇 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시기상으로 개연성이 있다.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는 일’에 “예!”라고 응답한 것은 신앙의 신비다. 그런데 응답한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결정하는 게 어렵나? 결정한 대로 사는 게 어렵지. 우여곡절 끝에 마리아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쳐도, 파혼을 철회한 요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암 투병 중인 사람이 어렵게 굳은 결심으로 항암치료 중단을 결정한다 해도, 가족 설득이라는 더 어려운 벽에 부딪힌다. 아마도 본인이 결심하는 것보다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 더 힘들 것이다. 그렇듯 이 시기에 마리아는 요셉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던 중 느닷없이 입덧이 시작돼 버렸다. 입덧은 요셉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감정에 역행하는 본능이다.

그래서 엘리사벳 언니 집에 산전 도우미 핑계로 서둘러 갔다. 서둘러 언니네로 간 게 아니라, 서둘러 요셉을 떠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서둘러 간 이유는 요셉에 대한 마리아의 배려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배려이며 공감이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 “예!” 하며 응답한 마리아의 삶을 따르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대한 배려와 공감의 삶을 따라 사는 건 어떨까?

상상 2. ‘걱정의 외주화’ 덕분이다

나는 요즘 두 가지에 꽂혀 지낸다. 하나는 몇 달 전 인천주보에서 김영옥 신부님이 소개해 주신 “냅뉘, 하느님(한님) 하시게.”라는 문장이다. 어찌

면 이렇게 믿음을 화끈하고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즘 그 문장을 곳곳에 써두고 자주 곱씹으며 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시기에 이정환 신부님에게서 우연히 얻게 된 ‘침묵의 성모’ 상본이다. 마치 조용히 하라는 듯 마리아가 입에 손을 대고 있는 이콘이다. 누가 프란치스코 교종께 봉헌한 작품이란다. 침묵의 순례자인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에 아주 딱 맞는다 싶어 입구에 아주 크게 설치하고 기도문도 만들어놓았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고, 맡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조바심과 걱정들을 침묵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모든 일들을 하느님께 맡기기로 결심한다. “예!” 하고 응답한 이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맡기기로 한다. 즉, ‘걱정의 외주화’를 결심한다.

마리아는 하느님이 걱정하시고, 하느님이 처리하시게 나를 놔두기로 하고 엘리사벳 언니를 만나기 위해 출발한다. 나도 가끔 이려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 더 잦아졌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게 ‘방치’겠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그게 ‘믿음’인 것이다.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자 요한을 낳게 하려고, 즈카르야의 입을 잠시 닫아버리셨듯이, 저를 침묵하게 하시어 주님의 일을 시작하소서. 아멘.”



김종성 요한 사도 신부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

순례: 믿음의 여정

김원영 프란치스코 신부 | 교구 사무처부처장, 전산·홍보실장

교회는 순례를 통해 신앙을 더욱 깊이 성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년 동안 로마는 순례의 중심지가 됩니다. 교황님은 신자들이 로마로 순례를 떠나 회년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는 일에 초대하십니다. 로마의 일곱 성당들—성 베드로 대성전, 성모 대성전,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 성 라우렌시오 대성전, 예루살렘 성 십자가 대성전, 성 세바스티아노 대성전—은 회년 동안 성스러운 장소로 더욱 주목받습니다.

순례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느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순례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합니다. 순례자는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먼 거리를 걸으며, 육체적인 피로 속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와 깊은 성찰의 여정입니다.

또한, 교황님은 로마로 직접 순례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 각 지역 교회에서도 회년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순례는 로마에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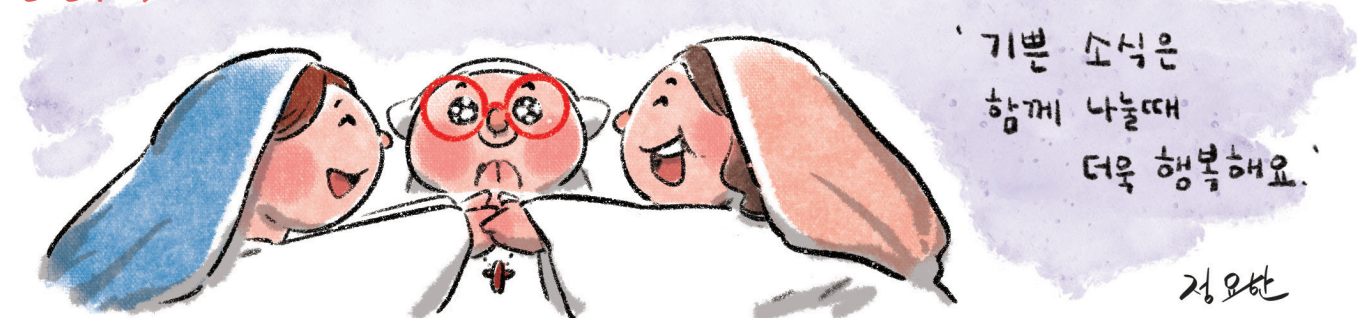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교회와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에 따른 장소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의 변화도 수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순례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순례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와의 연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 이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회년의 순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회년을 맞아, 우리는 순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순례는 단순히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며, 그분의 은총 안에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회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갈갈수녀님



마음을 표현하는 일

전병규 필레몬 | 부평1동 본당

영국 런던으로의 유학길에 올라 제가 처음 머물렀던 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집 안 곳곳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먼 땅에서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집 안 곳곳에 있던 십자가와 믿음에 관한 문구는 영국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저에게 ‘성당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을 때, 구글 지도를 열고 혹시 주변에 갈 만한 성당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Our Lady of the Assumption’(성모승천의 성모님). 데포드(Deptford) 지역에 있는 ‘성모승천’이란 이름을 가진 그 성당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내에서는 한참 떨어진 지역이기에 과연 안전할까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버스로 20분밖에 안 걸렸기에 한번 가보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데포드는 아프리카계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었던 만큼, 성당 역시도 흑인 신부님과 흑인 신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서 아프리카인들의 흥을 가득 담은 찬양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영어 미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와중, 신부님께서 연단 아래로 내려와서 하시는 강론에서 저의 신앙생활을 바꿔놓은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하느님께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당신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론 말씀이 끝나고,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친구와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저의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형식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뿐, 미사에 매

주 참석하면서도 하느님께 제가 가진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의 기도에 조금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기도할 때는 항상 하느님께서 올바른 길, 좋은 길로 제 삶을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할수록 제 믿음은 더 강해졌고, 이러한 믿음은 저에게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영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새로운 모험을 앞둔 저 역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항상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과 항상 믿어주시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응원해 준 주변의 수많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앙생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신 부평1동 청년전례단 그라시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음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러한 마음속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를 몰고 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하느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생기는 우리 삶과 신앙생활 속의 변화를 여러분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기도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세계 청년의 날(World Youth Day, WYD)을 상징하는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12월 4일(수)부터 11일(수)까지 인천교구에서 순례의 시간을 가졌다. 젊은이들에 의해 전 세계를 순례하는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지난 11월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거행된 제39차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 후에 한국청년대표단에게 전달되었다. 한국에 당도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먼저 서울대교구를 순례하였고, 두 번째로 인천교구를 순례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교구 방문 기간 동안 상징물은 성모당에 안치되었으며, 7일(토)에는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세계청년대회 상징물 순례기도 in 인천'이라는 타이틀로 기도회가 열렸다. 5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떼제기도, 목주기도, 성시간을 갖고, 깊은 밤까지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앞에서 자유로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8일(주일)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피정 파견 미사가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11일(수)에 다음 순례지인 대구대교구로 이송되었으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상징물들은 국내 각 교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교회를 순례하면서 청년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사목국 사회교리 주간 공동 포럼-기후위기와 노동자, 농민

교구 사회사목국



4일(수) 교구 사회사목국(=국장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은 사회사목센터 지하 강당에서 사회교리 주간 사회사목국 포럼을 진행하였다. 교구 사회사목국은 기후위기의 문제와 이후 실천의 방향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포럼을 준비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사목국 산하 각 위원회, 사도직 단체 회원, 신자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기조발제는 생태환경사목부 유재희 수녀가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노동과 농업 분야를 주제로 각 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이어 종합 토론을 통해 현실에서 시민의식과 교회의 역할을 더 높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사회사목국 부국장 김지훈 신부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체인 이 땅을 경제적 논리로 난도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자선 주일 이주민 겨울 나눔

교구 이주사목국



15일(주일)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교구 이주사목부(=부국장 김현우 바오로 신부)는 이주민들을 위한 겨울 나눔을 하였다. 겨울 나눔은 2022년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전달 가구 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으며, 올해는 1,000가구의 가정에 쌀과 김치를 전달하였다. 교구 관할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인 필리핀(오정동, 답동), 베트남, 방글라데시, 품놀이터, 해양 어선원, 중남미(역곡 곧솔라따) 공동체와 별사랑이주민센터, 글라렛 이주민센터, 국경없는 친구들, 맑은 무지개센터, 김포이웃살이, 까리따스 이주민문화센터 등 여러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과 난민들에게 전달하였다. 김현우 신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주민이셨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윤성순(베드로)씨, 신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윤성순(베드로, 부평4동 성당)씨가 12월 6일(금) 인천교구청 접견실에서 신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윤씨는 어린시절 신학교에 진학하여 사제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으나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이루지 못하였다며, 오랜 기간 모아온 1억 원을 사제 양성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 교구 안내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교구 시국기도회



12/23(월) 18:30 답동 주교좌 성당
주례 총대리 이윤권 베드로 신부

18:30~19:00 묵주기도
19:00~20:00 시국미사

교구청

552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25/2/16(주일) 13:30~18:30
장소: 복자 이안나 홀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평화대화 진행자 양성교육

일시: 25/1/4, 11, 18(토) 10:00~17:00
장소: 노동자센터(경인로671)
내용: 비폭력대화법 1단계
회비: 15만원(교재비 포함)
신청: 032-765-6970

교육 | 미사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서 연수

일시: 25/1/11, 13 (Zoom 이용)
다음카페 '노틀담 첫영성체' 검색
문의: 010-3829-7667

지혜의 샘 프로그램

·목요 치유 피정: 25/1/2 10:00~17:00
강사: 한연흠 신부, 한영임 회장
·기초 히브리어 본문 읽기 특강(창세기 3장):
25/1/8, 15, 22, 2/5, 12, 19 19:00~21:00
강사: 서한석 신부(가톨릭대 학부대학장)
장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1-1 지혜의 샘
문의: 010-3248-9705

성녀 소화 데레사 영성 강의 및 신심미사

일시: 12/28(토) 10:30~12:4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B 강의실
대상: 일반 신자들
지도: 가르멜 수도회 조운용 엘리야 신부
문의: 010-2411-1897

청주 초정성령회관 송년대피정

일시: 12/27(금) 20:00~29(주일) 14:00 [2박 3일]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강사: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버스: 18:20 출발 조치원 역 저녁
18:40 출발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문의: 043-213-9103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0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12/24 이상기 회장
문의: 010-5514-4077 화장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5/1/2(목)~10(금),
25/2/14(금)~22(토)
장소: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문의: 010-3340-0201

25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새해맞이 성모님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성체거동
일시: 25/1/4(토) 15:00~18:00
장소: 서울 성모병원 가톨릭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대상: 가톨릭 청년, 청소년 및 가족동반 신자
회비: 1만원
[예약계좌 794001-04-122952 국민은행]
주최: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025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5/1/16~18, 20~22, 24~26,
25/2/7~9, 15~17(제주T/S),
25/2/21~23, 25~27
일시: 25/3/1~3, 8~10, 13~16(추자도 포함)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25/2/6(목) 17:00~9(주일) 16:00 [3박 4일]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피정동반자: 조현철 신부(프란치스코, 예수회)
피정비: 30만원 [농협 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장애인연합회 성탄미사

일시: 12/25 14:00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32-761-3992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일시: 12/31(화) 11:00
장소: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이승훈 베드로 성지 12월 후원회 미사

일시: 12/26(목) 15:00 (14:20 묵주기도)
장소: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 실내 미사
(장수동 산135)
문의: 032-765-6916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집 | 일반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하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교구 우리농 반상근 직원 모집

우리농 회계 업무(초보 가능)
근무: 주 5일(13:0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시간 조정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처: inwoorinong@hanmail.net
마감: 25/1/3(금)
문의: 032-766-0565

원종2동 성당 사무장 채용(1명)

자격: 한글, 엑셀 가능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마감: 채용시까지
문의: 032-682-7340 성당 사무실
wonjong2@caincheon.or.kr

글라셋선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이주민 자녀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상담료: 1회 1만원
장소: 부천시 심곡본동 608-7
문의: 010-7794-6031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00~16:00
문의: 02-990-936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www.holyfcac.or.kr
문의: 02-764-4741~3

교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 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3201-0520 상담자 노경덕 신부

솔샘나우리센터(심리정서치료)

놀이, 모래놀이, 치료놀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대상: 아동, 청소년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문의: 032-872-2731
www.solsam.or.kr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원서접수: 전기2차 1/6(월)~23(목) 17:00까지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철학/신학,
62학점(수업료 학기당 1백만원)
·제2과정(석사과정)-교회법,
88학점(수업료의 50%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
https://gscl.catholic.ac.kr/gsccl/index.do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과정: 교리학과 [주간-주5일],
종교학과 [야간-주4일]
2년 과정,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25/1/17(금)까지
문의: 02-747-8501, ci.catholic.ac.kr

25년도 한길(야학)고 신입생 모집

야학! 만학의 꿈을 함께 일궈요(고졸 검정고시 준비)
·신입생 모집: 2년제, 나이 제한 없음,
학비와 교재 무료
·신임교사 채용: 국어, 미술
장소: 주안5동 성당
문의: 010-8348-0998 교감

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원서접수: 11/11(월)~25/2/14(금)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25년 인천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평신도 교리, 신학, 성경 교육과정
정원: 정규(2년) 30명, 심화(1년) 25명
문의: 032-830-7137, ds.iccu.ac.kr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365일 모집)
신설: 키워드로 읽는 성경,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수성심 강화·김포 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순례 | 기타**베트남 성지순례**

라방, 짝깨우 성모 발현 성지 [5일]
일시: 25/3/31 출발(대한항공),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25/4/24~5/5 성모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해외 성지순례

25/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25/3/10 이집트 완벽일주 순례 [13일] 625만원
25/5/25 산티아고 도보순례 [12일] 475만원
25/6/9 서유럽 성모 발현지 순례 [12일] 545만원
문의: 02-732-4578, www.bonatour.co.kr

해외 성지순례

2025년 동반자 1백만원 할인 이벤트
25/3/17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25/3/17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25/4/22, 5/6, 13, 20 이탈리아 일주 [11일]
25/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성소모임**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12/27~29(금~주일) 14:00 그 외는 전화
장소: 서울 보문동 수녀원
대상: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미리 연락)

도움이신 마리아 수녀회

일시·장소는 전화 상담 후 결정
문의: 010-5169-5494

**신청자격**

- 1) 대한민국 국적의 인천교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2025년도 대학교 입학예정자
- 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3)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자

지원내용

선발인원 12명
(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500만원(1회성)

선발일정

2024년 11월 15일 ~ 2025년 1월 10일

